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D-12

“우리도 함께 뛰다”

사랑 품고 뛰는 ‘거리의 선교사’ 25년 세월 함께 한 ‘우정의 질주’

광주 가톨릭마라톤 동호회

‘달리면서 희망과 사랑이 담긴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번 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광주가톨릭마라톤동호회(이하 가마동)의 슬로건이다.

지난 2005년 치평동 성당에서 첫 모임을 갖고 이후 금호동 성당·봉선동 성당·중앙동 성당 등 4개 본당 교우들이 모여 ‘달리는 거리의 선교사’가 되기로 뜻을 같이 했다. 가톨릭마라톤동호회는 서울·부산·대전·대구·수원·전주 등 전국적으로 조직을 갖고 있으며 광주 회원은 현재 100여명에 달한다.

비록 창단 4년 밖에 되지않은 ‘새내기’이지만 달리는 열정만큼은 여느 동호회에 뒤지지 않는다. 가마동은 매주 3일씩 훈련을 갖는다.

주중 연습은 월요일과 목요일, 광주시민공원·무각사·화순리터재 옛길 등에서 1시간30분 동안 15~20km 정도를 뛰는 것. 주말엔 광주시민공원을 출발, 서창 뚝방길을 따라 대촌·공광을 도는 30km의 실전훈련이 실시된다.

결코 적지않은 운동량이지만 믿음과 사랑의 전도사 역할을 생각하면 피곤함 보다



전국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 가톨릭마라톤 동호회가 이번 대회서 선전을 기대하며 포이팅하고 있다.

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되려 생긴다. 이렇듯 꾸준한 훈련을 통해 이전 내노라하는 실력가(?)들도 탄생, 설레이는 마음으로 대회 개막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 풀코스는 4명, 하프코스 30명, 10km에 10여명이 도전한다.

황동욱·염대열·김형호·강성재 회원은 풀코스 3시간30분 주파를 목표로 구슬땀을 흘려왔다. 이들 중 총무를 맡고있는 강성재 회원은 전국 각종 대회서 풀코스 완주와 하프코스 30여회의 경력을 지닌 마라톤 매니아이다.

이번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대회에 이어 전국 마라톤 대회를 찾아 출전할 계획인 가마동은 올해 전회원인 풀코스 1회 이상 뛰는 것과 함께 서브-3 주자도 배출하는 것이 목표다.

‘기쁜 소식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취호를 등에 달고 달리는 가마동은 지금은 4개 성당에서만 동호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앞으로 광주지역 모든 본당 교우들이 함께 땀을 흘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대회 힘찬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연락처 011-637-6062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광주 대촌중 11회 동창회

‘친구가 반갑다!’

송학산 정기를 물려받은 광주 대촌중학교 11회 졸업생들이 오는 3·1 마라톤대회에서 미니 동창회를 연다.

1983년 학교를 졸업한 뒤 각지에서 사회 일원으로 건실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창생 30여명은 이번 대회 5km에 참가한다.

지난 2000년 동창회를 결성한 대촌중학교 11회 졸업생들은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 글을 통해 매일 서로의 안부를 묻으며 그리움을 달리고 있다.

또 이들은 추석 정기 총회, 설 단합대회, 봄 야유회, 겨울 송년회 등 정기모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애·경사도 챙기며 돈독한 우정을 과시하고 있다.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은 마라톤 대회에도 도전하게 됐다.

동창회를 이끌고 있는 송운근 회장은 “함께 봄의 기운을 만끽 하고, 우정을 다지기 위해 마라톤 출전을 결정했다”며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10여명의 친구들도 모처럼의 고향 나들이에 나서게 된다”고 밝혔다. 대촌중학교 친구들의 우정을 위해 앞장



대촌중학교 11회 졸업생들이 3·1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함께 추억을 나누고 우정을 키울 생각이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서고 있는 송 회장은 이번 대회에 세 아이와 함께 달리며 ‘건강한 아빠’로의 모습도 보여줄 생각이다.

곳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동창회 일에 솔선수범하는 ‘스포츠 마니아’ 정재룡 고문도 가족 전체를 이끌고 대회에 참가해 우정과 가족사랑을 함께 키울 생각이다.

3월이 다가오면서 요즘 동창회 카페의 화제는 온통 3·1 마라톤 대회에 집중되고 있다.

바쁜 일상에 운동을 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아이들과 함께 달리기 시작하면서

‘오랜만에 달리기를 했더니 다리가 아프다’, ‘아들하고 운동을 했더니 기분이 좋다’ 등의 글을 올리며 마라톤 대회를 기다리고 있다.

대회 열기가 뜨거워지자 회원들은 아예 예비행사까지 마련했다. 오는 22일 대전 계룡산에서 광주와 서울 팀이 연합 산행을 하면서 대회 준비를 하기로 했다.

‘우정의 질주’를 향한 대촌중학교 11회 졸업생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日 전훈캠프를 가다

미야자키=김여울 기자



구톰슨·로페즈 쾌투 신고식

전훈 적응 속도 빨라... 두 용병 20승 합작 자신



<구톰슨>



<로페즈>

‘두 용병에게 20승을 묻는다.’ 2008 시즌 KIA 타이거즈 마운드에는 메이저리그 89승을 빛나는 리마, 강속구로 무장한 데이비스, 안정된 컨트롤의 디아즈 등 세 명의 용병 투수가 다녀갔다. 이를 값과 실력은 야구팬들의 감탄사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지만 이들 용병 3인방이 합작한 승수는 5승에 불과했다.

새로 KIA 마운드에 가세한 리 구톰슨(33·우투우타), 아킬리노 로페즈(34·우투우

타)가 앞선 3인방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미야자키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한국 프로야구 무대를 향한 두 용병의 향배는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팀 적응을 마친 구톰슨과 로페즈는 혹독한 한국 야구의 전지훈련 일정을 별탈 없이 소화해내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4년간 활약했던 구톰슨은 스스럼없이 외출을 나가고, 젓가락을 사용해 식사를 할 정도로 여유가 넘친다. 쉬는 시간 잔디밭에 누워 음악을 들으며 망중환을 즐기는 모습도 눈에 띈다. 일본의 스물볼도 이미 경험한 터라 2009시즌에 대한 자신감도 넘친다.

‘여유만만’인 구톰슨에 비해 로페즈는 팀 적응에 조금 시간이 걸렸다. 도미니카 출신의 로페즈는 메이저리그에서 중간계투로 활약한 경험이 있지만 동양 야구는 처음 접한다.

호기심을 가지고 낯선 훈련에 열성적으로 임했던 로페즈는 전지훈련 참가 3일 만에 백기를 들었다. 눈을 뜨자마자 시작해서 해가 질때까지 이어지는 훈련 일정에 첫 며칠은 몸살을 앓았다.

힘들다고 항변도 했지만 조범현 감독은 애써 이를 외면했다. 그동안 주로 중간에서 활약했던 로페즈가 선발로 나서기 위해서는 하체 강화와 체력 보강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지훈련에 참여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로페즈를 기겁하게 만들었던 러닝 훈련도 자연스러운 일과가 됐다. 지난 13일에는 자체 청백전에 등판해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날 청팀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한 로페즈는 2이닝 동안 1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

의 쾌투로 신고식을 치렀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3km. 슬라이더와 체인지업등 다양한 변화구와 안정된 컨트롤도 돋보였다.

두 선수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시즌 한술밥을 먹었던 용병들 사이에서 볼 수 없던 모습이다.

같은 도미니카 출신이었던 리마와 발데스는 투수와 타자로 포지션이 달랐다. 게다가 내성적인 발데스가 ‘쇼맨십의 황제’로 군림하던 리마의 기세에 눌려 기 한번 퍼지 못했다.

‘순둥이’ 디아즈도 고집불통에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던 데이비스와 남남이었다. 하지만 구톰슨과 로페즈는 훈련 내내 함께 움직이며 힘든 타국생활에 든든한 친구가 되고 있다.

올 시즌 10승 이상을 다집한 두 용병은 ‘평균자책점왕’ 윤석민과 ‘컨트롤의 마법사’ 서재용과 함께 KIA의 필승 카드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wool@kwangju.co.kr

“타격 폼 바꿔 V10 타선 주도”

KIA 외야수 채종범 선수

“야구를 그만 둘 생각까지 했었다.” 외야수 채종범은 지난 시즌 SK에서 KIA로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하지만 자신을 대하는 팬들의 냉랭한 반응에 채종범은 심한 가슴앓이를 해왔다.

채종범은 이성우, 김형철과 함께 전병두, 김연훈과 3 : 2 맞트레이드로 KIA 선수가 됐다.

SK로 옮긴 ‘미완의 대기’ 전병두는 KIA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선수였지만 3명의 이적생은 KIA 팬들에게 친숙한 이름이 아니었다.

게다가 이적생들의 망명이었던 채종범은 KIA 팬들에게 ‘신(神)’으로 여겨지는 ‘동맹이인’ 이종범과 외야 포지션까지 겹치면서 팬들의 텃세에 시달려야 했다.

채종범이 외야수로 나서 이종범이 경기에서 나서지 못하는 날은 그 정도가 더 심했다. 경기 내용 하나하나에 구단 홈페이지에는 채종범에 대한 악플이 난무했다. 채종범도 인터넷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글을 읽었다. 야구를 포기할 생각까지 할 정도였다.

하지만 ‘미운 오리 새끼’에서 ‘화려한 백조’로 거듭나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가을 남해 마무리 캠프 때도 가장 많은 땀을 흘렸던 선수가 바로 채종범이다. 스윙 동작도 간결하고 짧게 바꾸었다.

“폼을 바꾸면서 배트 스피드가 더 빨라졌다. SK가 훈련량이 많다고 유명하지만 KIA에서 그보다 더 많은 훈련을 했다. 올해 꼭 우승한 번 해보고 싶다.”

훈련의 성과는 코칭스태프에게 먼저 보여졌다. 코칭스태프는 올 시즌 주목할 선수로 채종범을 추천하지 않고 뽑는다.

인스트럭터로 다녀갔던 일본의 전설적인 타자 마츠바라도 주전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현할 정도로 채종범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KIA 선수로 자리 잡기 위한 채종범의 굳은 땀방울은 미야자키를 뜨겁게 적시고 있다. /wool@kwangju.co.kr

이신바예바 또 세계新

여자 육상 장대높이뛰기 지존 엘레나 이신바예바(27·러시아)가 실내육상대회에서 세계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신바예바는 16일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에서 열린 실내육상대회에서 5m를 넘어 자신이 지난해 이 대회에서 작성한 종전 최고기록(4m95)을 5cm 경신했다. 이신바예바는 1차 시기에서 이미 4m



97을 넘었기에 이날 기록을 두 차례나 새로 쓴 셈이 됐다. 작년 베이징을 립픽에서 두 차례 실패 끝에 극적으로 5m5를 넘고 세계신기록으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이신바예바는 올해 첫 대회에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며 야성을 더욱 공고히 쌓았다. /연합뉴스